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방법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宋 炫 周

2016年 2月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방법

指導教授 安 成 洙

宋 炫 周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12月

宋炫周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員 _____ ①

委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5年 12月

Storytelling Approaches
for Teaching and Learning Poetry

Song, Hyeon-ju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so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015.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2015. 12.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방법

송 현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지도교수 안 성 수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 중심의 시 읽기를 위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필자는 시를 스토리텔링 텍스트로 활용하고, 인물·사건·배경이라는 구성 요소를 지니고 이야기를 기술해 가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시를 감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학습의 단계를 세 단계로 설정하였다. 텍스트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나누기’, 시 속의 상황 이해와 주체적 감상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만들기’, 서로의 감상을 나누고 문학적 반응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야기 공유하기’가 그것이다.

이야기 나누기 단계는 시를 자신이 느낀 대로 이야기하고 다른 독자와 소통하며 작품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짝끼리 하는 하브루타 활동과 모둠 및 전체 토론 활동으로 구성된다. 짝끼리 하브루타 활동을 먼저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다양한 답이 예상되는 질문은 모둠 및 전체 토론을 통해 작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들은 시를 적극적으로 감상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 만들기는 ‘시는 시인이 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정된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인물·사건·배경 설정하기, 서사화하기, 화자의 일기 쓰기, 연결 독백하기, 가상 인터뷰하기, 희곡 쓰기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인물·사건·배경을 설정하고, 나머지 활동은 시 본문이나 다양

한 학습 환경 또는 학습자들의 선택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활동하게 한다. 학습자들은 시를 읽고 자신이 이해하거나 느낀 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봄으로써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 정서 등을 아우르며 시를 주체적으로 감상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학습자들은 시 속의 세상은 물론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 공유하기는 시에 대한 감상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고 자신의 감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단계이다. 감상문 쓰기, 감상화 그리기, 비평하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텍스트와 학습자의 흥미 및 능력, 수업 상황에 따라 감상문 쓰거나 감상화 그리기 활동은 선택하여 활동하는 것도 좋다. 자신과 비슷하거나 또는 색다른 다양한 감상을 보며 학습자들은 시에 대한 반응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 감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문학 감상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활용은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흥미’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경험과 학습기회를 확대시켜 줄 것이다. 이 연구가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국어 수업을 통해 검증과 개선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7
II. 스토리텔링 활용 수업 전략과 모형	
1. 수업 전략	11
2. 수업 모형	13
III. 시 지도 방법	
1. 하브루타로 질문-대화-토론하기	17
2. 서사로 표현하기	21
3. 극화하기	26
4. 화자의 일기 쓰기	35
5. 그림으로 표현하기	38
6. 비평하기	40
IV. 수업 모형 설계와 교수·학습 지도안 구안	
1. 시 교수·학습 모형	42
2. 시 교수·학습 지도안	48
3. 학습 활동 사례	56
V. 결론	69
참고 문헌	72
<Abstract>	7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문학교육의 목표는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시 교육도 학생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상상력을 키워 주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폭넓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학교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시를 감상하는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실제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대부분 상급학교 입시 준비를 이유로 교과서에 수록된 시 텍스트를 교사가 주도적으로 분석해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작품에 나타난 삶의 양상 및 작품의 현실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작품의 내면화 단계까지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좋은 시를 읽어도 그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미숙하며, 시에 대한 흥미를 잃고 시를 어렵게 느끼는 실정이다.

문학교육의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이론을 토대로 새로운 문학교육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특히 학습자의 개인적 요구나 필요, 흥미를 고려한 교육 방법들이 중시되고 있다. 학습자의 개성이나 독창성을 인정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탐구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육방법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에는 연극·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광고·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주로 활용

되어 왔다. 이 장르들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어 향유자들을 만족시키는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전달한다는 의미가 확장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인포메이션 분야,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분야, 의복·음식·건축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도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스토리텔링은 수업 외적인 교육 콘텐츠를 통해 먼저 시도되었다. 교육과 놀이를 결합시킨 콘텐츠들은 재미를 앞세우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그 안에서 교육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전략을 시도하였다. 스토리를 통해 학생들을 학습의 장으로 유도하고, 학생들이 이전보다 더 흥미롭게 학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이루어냈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의 성공에 힘입어 정규 교과 수업방식에서도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2013년 수학교과에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이 반영되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육 연구는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어교육, 특히 시 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더하고, 만들고, 들려주고, 표현하고,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스토리텔링의 과정은 내용 선정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국어 수업 학습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토리텔링의 요소들을 국어 수업에서 잘 활용하면 학습자들은 훨씬 더 흥미롭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될 것이다. 특히 문학 감상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활용은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흥미’ 진작 효과를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경험과 학습기회를 확대시켜 줄 것이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사전에 대상의 수준에 맞추어 이야기를 선정하고 계획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학습자의 문학 향유에 적합한 난이도의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자 중심의 시 읽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과 시 수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 다음 실제 수업에서의 적용과 사례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시 감상 지도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실제 교육 현장

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방법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이 시를 흥미롭게 학습하고, 시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심미적 정서를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시 교육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문학교육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고 확대되면서 학습자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 이후 문학교육론의 논의 방향이 점차 확대, 구체화되면서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 왔다. 시 교육론에 있어서도 그 전반적 문제들을 탐색하면서 학습자의 주체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방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 수업에 스토리텔링을 연계한 연구와 시 지도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국어 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경은은 이야기, 사진, 신문 기사, 그림, 음악, 영상의 스토리텔링을 천상병의 「귀천」 작품에 활용하여 작품 감상의 본질적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¹⁾ 이 연구는 디지털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문학 수업을 입체적이고 흥미롭게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유미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고전문학 교육을 위해 먼저,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이론들을 점검하였다.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 고전문학 교육과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구운

1) 이경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학 감상 교육 방안 연구: 천상병의 ‘귀천’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몽'을 텍스트로 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방법을 도입하고 실제 수업을 구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문학에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²⁾

신명훈은 텍스트 중심의 획일적인 구비문학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³⁾ 이 연구의 스토리텔링은 구비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 재현하는 활동이다. 학습자들의 구비문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 생성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모둠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 감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최선영은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문학 작품의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수 있는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대표적 작품을 선정하여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접목시켜 수업 방안의 예시를 보여주었다.⁴⁾ 그리고 한국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한국의 사회·문화 교육, 한국문학에 대한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의 원리를 가미한 교육의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 연구들은 스토리텔링의 활용이 작품을 읽고 향유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은 물론 다른 독자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도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용해 보지 못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주향은 상상력 계발을 시의 교육적 의의로 파악하여 '상상력의 환기 - 조정 - 확대' 단계에 따르는 지도방법을 제안하였다. 시 교육에서 상상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면서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보인다.⁵⁾ 그러나 시 교육을 학습자들의 상상력에만 맡길 경우 잘못된 해석이나 오류를 바로잡

2) 유유미,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구운몽' 교육 방안 연구 : 환상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 신명훈,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구비문학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4) 최선영, 「한국 문학 작품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5) 김주향, 「시 교육 방법 연구- 상상력 계발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을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목된다.

지현배는 학습자 중심의 시 학습을 위한 모형으로 ‘목표 선정 - 수업 모형 - 평가틀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전개하며 시 수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여 지적 교양인이 되기 위한 시 이해와 감상의 방법으로서의 시 교육을 제안하였다.⁶⁾

류덕제는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관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기존 학교 교육에서 시 교육이 한 가지 관점과 하나의 진리만을 제공하여 대안적인 해석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지나치게 교과서에 의존하여 높은 수준의 추론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기능 습득이 더 많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반응 중심 수업모형’을 보완한 ‘개인적 구성 - 개인간 구성 - 사회적 구성’이라는 새로운 문학 수업모형을 제안하였다.⁷⁾

박선미는 시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를 알고 능동적인 반응을 이끌기 위해 신비평이론과 독자반응중심이론의 통합적 적용을 바탕으로 ‘평가활동 시 수업모형’을 구안하였다. 초등학교 문학영역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시와 관련된 10가지 평가 항목을 만들고 관점에 따라 평가하며 시를 읽도록 제안하고 있다. ⁸⁾ 그러나 연구자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신비평이론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분석적인 접근으로 감상보다는 해석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이순녀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제에 맞게 선택된 시를 읽고 자유롭게 토의·발표하여 기록하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텍스트 지식을 활성화하여 비평문을 쓰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하고 그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평문 쓰기를 통한 시 교수·학습 방법이 전통적인 시지도 방법에 비해 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대한 흥미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⁹⁾ 이 연구는 자신이 읽은 것에 대한 해석, 느낌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비평문 쓰기가 문학교육의 중요한 가능성임을 보여주었다.

한지혜는 시 감상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원칙을 다

6) 지현배,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시 수업모형」, 『국어교육연구』 27호, 경북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995.

7) 류덕제, 「구성주의 관점의 문학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2001.

8) 박선미, 「평가활동을 통한 초등학교 시 교육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9) 이순녀, 「비평문 쓰기를 통한 시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의 주체적 감상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모형이어야 한다. 즉, 학생의 주체적 시 읽기의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이 수업을 통하여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둘째, 학생의 주체적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계획적인 방향 제시, 활동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시 장르의 예술적 특성을 살린 감상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지적 영역의 지도는 최소화하되, 정의적 영역과 심미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지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이 연구에서 가르쳐야 할 문학 이론적 영역을 최소화하고, 시 감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를 중심으로 모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윤성아는 시를 읽거나 듣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시를 감상할 때 토의 활동만 강조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다보면 시의 부분적인 감상에만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토의 활동 후에는 의견을 종합한 반응일지를 쓰도록 하여 감상 내용을 통합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¹¹⁾ 이 교육 방법은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었으나, 시 고유의 특성인 운율, 정서, 심상, 비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한계이다.

시 지도 방안에 관한 이상의 연구들은 지식 중심과 텍스트 중심의 왜곡된 문학 교육 현실을 개선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시 감상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학습자 중심의 시 감상 방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시 내용 이해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시의 운율이나 심상 등을 살피는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물론 시 교육은 인지적 영역보다는 학생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상상력을 키워 주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폭넓게 이해·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 교육의 방향에 부합되면서 시 고유의 특성을 살피는 데도 효과적인 시 감상 방법이 있다면 학생들은 시를 좀 더 쉽게 생각하고 즐겁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국어 수업에 스토리텔링을 연계한 연구와 시 지도 방안에 관한 선행 연

10) 한지혜, 「시 교육에서의 감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1) 윤성아, 「토의학습을 통한 시 감상 능력 신장 방안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구들을 살펴보았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 모형들은 스토리텔링이 학습자들이 흥미롭게 학습하여 집중력과 이해력을 높이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시 감상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이론의 적용은 독자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문학교육의 목표에 부합되어 타당해 보인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학습자 중심 시 감상 수업의 가능성을 탐구해 보려고 한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시 감상 교육을 위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스토리텔링에 의해 양육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머니가 들려주는 자장가를 듣고, 동화와 만화를 읽으며, 이야기를 통해 삶의 정보를 하나씩 터득해 간다. 텔레비전을 통해 영상과 음성이 결합한 스토리텔링을 경험하고, 연극이나 영화 등 다양한 문화형식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즐기기도 한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수받고 있으며, 자신의 삶 역시 이야기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삶을 규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스토리텔링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임경순은 스토리텔링이 언어, 반·비언어적인 요소, 이야기를 하는 주체, 이야기를 듣는 주체, 이야기와 이야기 행위,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이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한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생산수용자가 현실적·비현실적 사건이 담긴 이야기를 특정한 매체를 매개로 이야기-수용생산자와 소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¹³⁾ 이런 견해는 효율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12) 송정란,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문학아카데미, 2006.

13) 임경순, 「스토리텔링과 언어문화교육」, 『한국어문학연구』 제26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의 스토리텔링에 주목한 것이다.

창가와 헤리슨(Changar & Harrison)은 스토리텔링을 ‘화자는 이야기를 하고, 청자는 화자의 말하기와 자신의 경험이나 믿음에 기초하여 상상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 활동이며 청자와 화자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하였다. 권혁일은 또한 스토리텔링은 상호작용적 수행예술이라고 하면서 ‘화자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고 반응을 주고받으며 청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여¹⁴⁾, 청자와 화자간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상의 정의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소는 소통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스토리텔링이 단순히 설득력 있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토리텔링은 또한 각 분야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향유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다. 향유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향유자들의 흥미를 끌고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했을 때 스토리텔링은 다른 사람에게 재미와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과, 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폭 넓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창작자와 스토리를 향유하는 향유자간의 흥미로운 소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교육과 놀이를 결합시킨 교육 콘텐츠들은 재미를 앞세우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그 안에서 교육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전략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콘텐츠로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는 <보물찾기 시리즈>와 한자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기획된 <마법천자문> 등이 있다. 이 콘텐츠들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화라는 장르에 인물과 사건, 배경이 들어있는 스토리를 제시하고 그 안에 학습 내용을 적절히 삽입하여 스토리를 따라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흥미 있는 스토리에 관심

14) 권혁일,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초등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학연구』, Vol.39 NO3, 2008, pp.139-140.

을 갖게 되면서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학습의 장인 만화에 머무르게 된다. 스토리를 통해 학생들을 학습의 장으로 유도하고 학생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흥미를 느끼게 하면서 학습효과를 달성한 것이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교사포럼에서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스토리텔링은 흥미롭고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이 용이하다. 둘째, 스토리텔링은 전이가 가능하고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개념의 이해를 돕는다. 셋째, 스토리텔링은 삶을 더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넷째, 스토리텔링은 의미 전달이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학생들의 동기유발에서부터 학습에 대한 몰입, 개념에 대한 이해, 상상력, 창의력 신장, 정서적 전달 등 교육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자를 도와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필자는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더하고, 만들고, 들려주고, 표현하고,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시 수업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텔링 과정으로 구성해 볼 것이다. 시적 서술의 장단에 관계없이 시 속에도 이야기가 존재한다. 시에 이야기가 없다면 시를 인간의 집단적 서사로서의 문학에 편입시킬 방법이 없고 시의 서사성에 관한 일체의 메타언어적 풀이와 해석, 비평적 환언은 불가능해질 것이다.¹⁵⁾ 따라서 필자는 ‘시는 시인의 하고 싶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전제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 다른 학습자와 소통하며 이야기를 이해하고, 시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들려주고, 전달하는 시 수업을 구상해 볼 것이다. 즉, 시를 스토리텔링 텍스트로 활용하고, 사건과 등장인물, 배경이라는 구성 요소를 지니고 이야기를 기술해 가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시를 감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수업 전략과 수업 모형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얻은 경험을 참고하여 스토리텔링의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 시 감상 지도법을 다양하게 구안해 볼 것이다. 다양한 시 감상 지도법을 필자가 근무하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시 수업에 적용해 보고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할 것이다. 다

15) 도정일,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 한다』, 민음사, 1995, p.145.

음에 다양한 시 지도 방법들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할 것이다. 이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법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의 구안과 실천, 적용해 본 실재를 소개하는 데 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한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의 전략에 대한 효과 검증이나 실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까지 다루지 못하였음을 연구의 한계로 밝힌다. 이 연구가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국어 수업을 통해 검증과 개선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다.

II. 스토리텔링 활용 수업 전략과 모형

이 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 설계를 위해 그간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활용 수업 전략과 모형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수업 전략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수업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스토리텔링 수업은 스토리가 있는 텍스트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넓은 의미의 스토리텔링 수업은 수업 과정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텔링 과정으로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연구도 이 두 가지 경향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스토리텔링 기반 수업 설계에서도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업의 일부에서만 활용할 것인지, 수업의 전 과정 또는 크게 보아 단원 전체에 활용할 것인지를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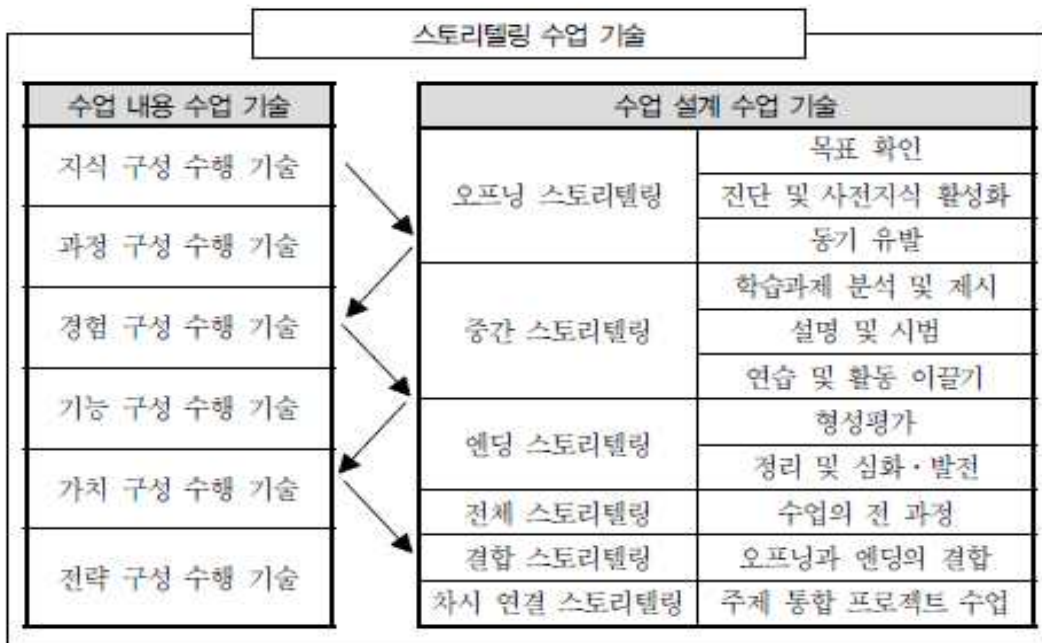
<스토리텔링 기반 수업 설계 전략>¹⁶⁾

구분	내용
유형1	전 과정을 스토리텔링 학습 방법으로 개선
유형2	발단 부분만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흥미 극대화
유형3	전개 부분만 스토리텔링으로 수업 목표 달성
유형4	결론만 스토리텔링으로 수업 정리
유형5	단원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전개

16) 백조현·박수홍·강문숙, 「스토리텔링 기반 수학과 수업설계전략 모형 개발 : 확률과 통계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Vol. 20, 2010.

이와 관련하여 이지영은 수업 내에서 스토리텔링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오프닝, 중간, 엔딩, 전체, 결합, 차시결합 스토리텔링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지영의 스토리텔링 수업기술>¹⁷⁾



그는 각각의 스토리텔링이 수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프닝 스토리텔링은 수업의 기대 태세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수업에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주의를 집중시키고, 학습 동기유발의 차원을 가리킨다. 따라서 수업을 위한 자극제로서 수업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활용되지만 수업에서는 활용되지 않는다. 중간 스토리텔링은 수업에 스토리텔링을 직접 적용하는 방식이다. 수업 내용 수업 기술은 중간 스토리텔링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국어교육 내용인 지식, 과정, 경험, 기능, 가치, 전략을 스토리텔링적 요소로 변환하여 수업 활동 내용으로 구성하게 된다. 엔딩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의 장치로 수업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배운 내용을 이야기로 써 보거나 서로 이야기해 봄으로써 이해 여부를 확인하게

17) 이지영, 「스토리텔링 수업 기술의 국어 수업 적용 연구」, 『청람어문교육』, Vol.45, 2012, p.74.

나 배운 것을 요약할 수 있다. 전체 스토리텔링은 수업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이야기로 수업이 시작되어 사건의 시작부터 사건의 해결에 이르는 일련의 이야기 전개 과정이 수업 내용이 된다. 결합 스토리텔링은 오프닝 스토리텔링과 엔딩 스토리텔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다. 차시 연결 스토리텔링은 교육과정 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차시 연결 스토리텔링에 동원되는 이야기는 일회적인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원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환기된다. 학습이 순환성을 가지고 프로젝트화 될 경우, 학습 과정은 스토리텔링의 진행 과정이 된다.¹⁸⁾

이와 같은 구분은 한 시간 또는 한 단원을 수업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스토리텔링 텍스트를 활용하여 각각의 단원에 적절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스토리텔링의 교육과정을 완성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의 경우 전체적인 수업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스토리가 있는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보다 높은 차원의 수업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2. 수업 모형

학계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 모형을 연구해 왔다. 그 중에는 스토리텔링의 내러티브 요소를 활용하거나, 활동을 중심으로 하거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양한 수업 모형들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필자가 구안하려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과 상관성을 지닌 모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건의 스토리텔링 모형

이건(Egan)은 수업을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18) 이지영, 위 논문, p.77.

이야기 속에 변증법적 방식을 활용하여 이야기 형식 교육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건의 스토리텔링 모형>¹⁹⁾

스토리텔링 모형	
단계	주요 활동
1. 중요성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이것이 왜 학생들에게 중요한가? · 이것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무엇인가?
2. 이항대립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항대립쌍은 무엇인가?
3. 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조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항 대립쌍을 가장 극적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 주제를 이야기 형태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4.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항 대립 속에 내재된 극적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5.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이 주제를 이해했고 중요성을 인지했으며 내용이 학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필자는 ‘3. 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조직하기’ 단계를 ‘이야기 만들기’ 단계로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것이다. 독자가 시를 읽고 이해한 내용 즉 시의 화자, 시 속의 배경,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물, 사건, 배경을 설정하고 시 속에 내재된 이야기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설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 속의 상황 이해는 물론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인식하고 성찰하며 시를 주체적으로 감상하게 될 것이다.

19) 전현정·강현석, 「대안적 초등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Egan의 이야기형식 모형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Vol.22, 2009.

2) 전현정·강현석의 이야기 형식 교육과정

전현정·강현석은 이건(Egan)의 스토리텔링 모형이 제시하는 단계가 포괄적이어서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사들이 수업에 적용하기에 쉽도록 주제 알아보기, 문제 찾기, 이야기 만들기, 함께 생각하기, 되돌아보기의 5단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전현정·강현석의 이야기 형식 교육과정>²⁰⁾

이야기 형식 교육과정	
단계	주요 활동
1. 주제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개발이나 수업 계획 전에 교사가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시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단계 · 교육과정에서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제 중에서 학생들이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등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파악하고 계획하는 단계 ·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로 교사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단계
2. 문제 찾기 (사례와 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를 가장 극명하게 대립시킬 수 있는 요소 두 가지를 찾는 단계 · 주제 알아보기에서 교사가 계획한 것을 학습자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 · 본격적인 학습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단계
3. 이야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립 요소를 적절히 포함하면서 주제를 전개시켜 나가는 단계 · 문제를 포함한 갈등요소나 반례를 충분히 수집하여

20) 전현정·강현석, 위 논문, p186.

	<p>이야기를 만드는데 이때 교사는 주제와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만들기에서는 교사의 계획이 중심이지만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수집한 이야기들을 첨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둬
4. 함께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에서 전개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 · 교사 주도가 아닌 학급 구성원간의 토의 및 토론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여 도출해내는 단계 · 실제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통해 학습한 지식을 내면화시켜 자기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단계
5. 되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알게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새김 · 심화·보충의 과정을 밟거나 평가활동(학생 상호, 자기, 교사평가)을 수행

필자는 ‘3. 이야기 만들기’ 단계와 ‘4. 함께 생각하기’ 단계를 수정·보완하여 모형을 설계할 것이다. 단, ‘3. 이야기 만들기’ 단계에서는 교사의 계획이 중심이고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수집한 이야기들을 첨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지만, 이 연구에서는 학생 중심 활동으로 구성하여 주체적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4. 함께 생각하기’ 단계를 수정·보완하여 ‘이야기 나누기’ 단계로 설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학급 구성원 간의 토의 및 토론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한 지식을 내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시 지도 방법

문학교육은 단순한 지적 인식의 차원을 넘어 체험의 대상으로 끌어올릴 때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다양한 문학 작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학의 신비를 느끼게 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며, 풍부한 정서를 불러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 필자는 지금까지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학습자 중심의 감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 지도법들을 제안하는 데 목표를 둔다. 따라서 교사가 이러한 지도법 중에서 취사선택하여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1. 하브루타로 질문-대화-토론하기

1) 새로운 수업 패러다임 모색

에드가 데일(Edgar Dale)의 학습의 원추(Cone of Learning)에 의하면 수동적 배움(passive learning)보다 능동적 배움(active learning)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읽거나 듣거나 시청각 자료를 보는 활동보다는 토의와 토론, 직접 설명 등의 활동이 2주 후의 기억에서 훨씬 큰 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교육 현장에선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이를테면, 교사는 토론과 협동 학습, 프로젝트 학습, 컴퓨터 기반 학습, 문제중심학습법 등의 다양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시도하면서,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보다는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배우는지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수업의 패러다임도 하나의 정답을 가르치는 것에서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는 것으로, 듣는 교육에서 말하고 질문하는 교육으로, 개별 학습보다는 학습 공동체를 통한 학습으로 변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수업 방법의 하나로 ‘하브루타’를 제안한다.

2)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학습에서 질문은 학습의 출발점이자 학습 의지의 표출이기도 하다. 질문을 활용한 학습법으로는 유대인들의 학습법인 ‘하브루타’가 있다. 하브루타는 탈무드를 공부할 때 함께 토론하는 짝, 즉 파트너를 일컫는 것이다. 최근에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교육 방법’을 뜻하는 말로 확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브루타는 정해져 있는 학습목표가 없다. 그러므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고 어떤 답도 가능하다. 단, 서로가 서로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형식상 둘이 짝을 짓는 것이 하브루타의 특징이어서 가장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토론 방식이다. 세 사람 이상이 되면 소극적인 학생은 토론 내내 한 마디도 안 할 수도 있지만 둘이 토론할 때는 침묵을 지킬 수 없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토론 구조²¹⁾가 하브루타 토론법이다.

하브루타는 짝과 함께 질문과 설명을 주고받으며 공부하는 방법이다. 텍스트를 학습하거나 분석한 후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이 답을 한다. 자신이 학습한 것을 설명하면서 서로 대화와 토론, 논쟁을 통해 학습 내용을 견고하게 자기화 하는 것이다. 이를 변형하여 두 사람의 의견이 같으면 함께 그 이유와 근거를 들어 검증해 보게 할 수 있다. 의견이 다를 경우, 각자 이유와 근거를 들어 제시하여 더 타당한 쪽으로 두 사람의 의견을 모으게 하는 학습 활동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하브루타를 통한 시의 텍스트 이해하기 활동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봉선화> -김상옥²²⁾

비 오자 장독대에 봉선화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 집을 그리시고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 생각하시리

21) 전성수, 한국일보(2013.1.8.). 참고

22) 김상옥, 『촉촉한 눈길』, 태학사, 2001.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매어 주던
 하얀 손가락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본 듯 힘줄만이 서노나

이 시를 지도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고려하여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활동으로 구성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읽은 시: <봉선화> -김상옥	
시 감상 활동: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p>* 제목과 관련된 추억 이야기</p> <p>1. 시 제목을 듣고 무엇이 생각나나요? 또는 어떤 추억이 떠오르나요?</p>	<p>짙: 옛날에 누나와 함께 했던 봉선화 물들이기가 생각남.</p> <p>나: 내가 어릴 때 유치원에서 봉선화 물을 들인 것이 생각남.</p>
<p>* 시 낭송하기</p> <p>2. 시를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p> <p>혼자 읽기 → 짙과 1행씩 번갈아 읽기 → 짙과 1연씩 번갈아 읽기 → 짙과 함께 맞추어 읽기</p>	
<p>* 분위기와 정서 이야기</p> <p>3. 시의 분위기는 어떠한가?</p> <p>4. 시에 나타난 말하는이의 주된 정서?</p>	<p>짙: 쓸쓸하다. 고요하다.</p> <p>나: 향토적이다. 시골 느낌이 난다.</p> <p>짙: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한 그리움</p> <p>나: 누님에 대한 그리움</p>

* 시의 내용 파악하기 5. 말하는 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짙: 어린 시절 누님이 봉선화 물을 들여 주던 것을 그리워함.
	나: 편지를 쓰며 누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6. 시인이 시를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	짙: 누나를 그리워하는 마음
	나: 어린 시절의 추억과 누님에 대한 그리움
* 심상 이야기 6. 시를 읽고 나서 어떤 이미지(심상)가 떠오르는가?(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짙: 붉은색 이미지
	나: 시각적 이미지
7. 어느 부분에서 특히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가?	짙: 봉선화, 손톱에 꽃물 들이던, 연붉은 그 손톱
	나: 장독대, 해마다 피는 꽃, 하얀 손, 고향 집
* 운율 이야기 8. 운율이 잘 느껴지는가?	짙: 네.
	나: 네.
9. 잘 느껴진다면 어떤 점 때문에 운율감이 잘 살아날까?	짙: 3·4자마다 끊어 읽게 되는 4음보의 규칙성 때문에
	나: 4음보율, 누님이란 단어 반복
* 표현 이야기 10. 마음에 드는 표현이나 인상적인 표현을 찾아보자.	짙: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매어 주던
	나: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11. 비유나 상징적인 표현을 찾아보자.	짜: 지금은 꿈속에 본 듯 힘줄만이 서노나
	나: 힘줄만이 서노나
12. 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짜: 이제는 나이가 들었음을 상징하는 것 같다.
	나: ‘힘줄’이 ‘늙음’을 상징한다.
* 질문 만들기 13. 위 질문 외에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봅시다.	짜: 화자는 편지에 무슨 내용을 썼을까?
	나: 고향집에는 아직도 봉선화가 있을까?

하브루타 활동에서 교사는 지도해야 할 내용을 질문으로 제시해 주고, 학습자들은 짝끼리 질문을 주고받으며 텍스트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교사가 제시하는 질문 외에도 ‘질문 만들기’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며 감상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 하브루타 활동은 모둠 및 전체 토의 활동의 바탕이 된다. 하브루타 활동이 끝나면 교사는 어려운 내용이나 다양한 답이 예상되는 핵심 질문을 선정하여 모둠 또는 전체 토의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학습자들은 작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2. 서사로 표현하기

1) 서사의 의미

인간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 이야기 속에서 태어나고 이야기를 만들며 살다가 한 편의 이야기를 완성하면서 생을 마감한다. 삶의 과정은 다양한 맥락의 이야기를 이룬다. 그러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언어로 전달되면 서사적 기억으로 남게 된다.

서사는 그 내용으로 포괄하는 가치는 물론 이야기하는 행동 혹은 능력 그 자체가 교육의 힘을 가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이에 착안한 이들이 서사의 교육성을 인식하고 주장해 왔다.

서사(敍事)는 사건을 언어로 서술한 것이다. 언어로 서술된 서사에는 이야기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서술자의 개입이 기본적 요건이다. 즉 서술자가 매개가 되어 이야기의 세계를 언어로 옮기는 것이 서사이다. 이러한 서사의 일차적 기능은 서사를 통해 경험을 정리하는 것으로 언어적 처리 과정과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사는 경험을 정리하면서 경험을 뛰어넘는 경우까지 담당한다.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서사의 기능 중 하나이다.

서사의 기본 요소는 시간, 공간, 행동이다. 시간으로 분열된 삶을 다시 시간으로 통합하는 것이 서사이다. 일반적으로 서사는 일정한 시간 내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글로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글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서사는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전이가 주안점이 된다. '무엇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해답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발생하였는가?'라는 질문에도 대답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의 움직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에까지 이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사건의 시간은 단순한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의미의 연계성을 가진 사건들로서 단순한 변화가 아닌 의미 있는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

2) 서사화 하기

서사는 일정한 시간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행동을 글로 나타내는 것으로 서사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사 내용을 풍부하게 마련해야 하며, 마련한 내용은 일정한 순서로 조직하여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서사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사건이나 행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이며,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가?
- 그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서사의 순서를 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

와는 상관없이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을 먼저 제시하고, 원인에 해당하는 사건을 나중에 제시할 수도 있다.

서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건은 여러 가지 작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사건을 구성하는 작은 사건들 중에서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들도 있다. 서사의 방법을 글로 표현할 때에는 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인물, 최초의 사건 등을 글의 처음 부분에 제시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관련된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사건의 결과를 끝 부분에 제시하도록 한다.

이 학습은 학생들이 시의 언어와 산문의 언어, 문학의 언어와 일상적 언어의 특성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활동에 적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다. 특히 시어의 함축성, 간결성, 비유나 상징 등을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문학적 언어의 다양한 표현 특성을 학습자가 체득하여 말하거나 글쓰기로 전이시킬 수 있다. 즉, 일상 언어에 가까운 산문의 언어가 어떤 특성으로 인하여 시적 언어와 다른가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적 언어로 활용하는 시의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학습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시를 난해하다고 느끼거나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다고 생각하여 시를 어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시가 지니고 있는 서사성을 장르의 구분을 넘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접근하다 보면 쉽게 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에서 생략된 상황을 서사로 표현하여 상상력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시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시를 읽고 서사로 표현한 것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진달래꽃> -김소월²³⁾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23) 김소월, 『진달래꽃』, 휴먼앤북스, 2011.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시를 지도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고려하여 서사화 하기의 방법으로 재구성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읽은 시: <진달래꽃>-김소월
시 감상 활동: 서사화 하기
<p><인물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인물에 대해 써 보자. (여성일까, 남성일까? 나이는? 어떤 모습일까? 등) <li style="padding-left: 20px;">: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여성과 떠나가는 남성 -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름을 지어 보자. <li style="padding-left: 20px;">: 영자, 영철
<p><배경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를 읽고 떠오르는 풍경에 대해 써 보자.(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주변의 모습 또는 분위기 등) <li style="padding-left: 20px;">: 시골마을, 마을 뒷산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사건 구성>

-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 일어났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둘이 헤어지게 되었다. 이별을 아쉬워하는 여성이 떠나가는 입을 위해 진달래꽃을 준비하고 있다. 입이 비록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지만 입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사화 하기>

- 인물, 사건, 배경이 드러나게 이야기로 써 보자.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영자와 영철이라는 순박한 아이들이 살았다. 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오면서 오누이처럼 사이좋게 지냈다. 영철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면 영자도 항상 함께 산에 올랐다. 둘은 산에 핀 진달래꽃을 앞에 두고 맹세했었다. 이 마음 늘 변치 말자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둘은 모두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영철이 이웃마을 처녀와 혼인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영자는 처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예전의 영철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였다. 집안 좋은 이웃마을 처자와 결혼시키기로 영철의 집안 어른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였다. 효자로 소문 난 영철은 어른들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영자는 영철을 마음으로는 놓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잡을 수도 없었다. 영철이 선택한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영원히 영철을 기다릴 수 있었으니까.

영철이 혼인하던 날 영자는 영철과 늘 함께 오르던 산에 올라가 진달래꽃 한아름을 땀다. 그리고 영철이 지나가는 길목에 눈물과 함께 그 꽃을 뿌렸다. 영자는 영철이 진달래꽃을 밟으며 떠나가는 것을 보면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들킬까봐, 차마 영철이 떠나는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서사화 하기 활동에서 학습자는 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물·사건·배경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러한 지도법을 통해서 학습자는 한 편의 시를 서사로 꾸며봄으로써 생략된 상황을 이해하고 난해하고 모호한 시에 보다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에 나타난 상황을 학생들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작품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3. 극화하기

‘극적(Dramatic)’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극을 보는 것처럼 큰 긴장이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비록 깊이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극은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신선한 흥미와 창조적 경험을 만들어준다. 연극의 매력은 바로 이런 점에 있으며, 한정된 인생을 풍부하게 해준다. 또한 연극은 창조의 즐거움, 감정 해방의 즐거움, 나아가 협력의 즐거움을 알게 해 준다.

이러한 연극의 기법들을 시 교육에 적용하면 수업에 활기와 재미를 더할 수 있고, 난해하다고 느끼는 시를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와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시 감상 교육에 연극적 기법을 도입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²⁴⁾ 이 연구에서는 움직임 중심이 아닌 대화 중심의 활동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극적 활동을 위해 학습자는 먼저 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 속의 극적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어울리는 시간적·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을 설정하게 된다. 극적 상황 연출을 위해 인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사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적 상황을 구체화시켜 심미적 체험으로 극대화하는 길도 열릴 것이다.

24) 시 감상에 연극놀이를 접목시킨 연구로는 양홍희(2001)의 ‘연극놀이를 통한 시조감상 방법 연구’, 이수동(1999)의 ‘시 교육의 연극적 방법 활용 연구’, 천미경(2001)의 ‘연극놀이를 적용한 동시 교육방법 연구’, 최윤정(1995)의 ‘연극놀이의 교육적 효율성 연구’, 이영심(2000)의 ‘극화 표현을 통한 시 감상 지도법’ 등이 있다.

역할극을 할 때에는 극적 완성도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몰입을 중시하여 토의식으로 이끌도록 한다. 또한 시를 대본으로 재구성할 때 시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1) 연결 독백하기

독백하기는 시적 상황, 분위기, 시적 대상의 이미지에 대한 상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관객이 되는 동료 학생들이나 교사에게 알리려고 혼자 말하는 대사이다. 연결 독백하기는 한 학습자가 시 속의 화자나 등장인물이 되어 독백극을 하면, 다음 학습자가 즉흥적으로 그것을 받아 이어 독백극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원 텍스트에 대해 재생산된 메타텍스트를 토대로 시의 내용을 좀 더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은 앞서 발표한 학생의 의견을 잘 듣고, 이어서 말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설명한다. 문맥이 어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표현이 서투른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 보도록 유도한다.

시를 읽고 연결 독백하기 활동을 한 것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분홍> -김억²⁵⁾

봄바람 하늘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틍니다.
연분홍 송이송이 못내 반가와
나비는 너홀너홀 춤을 춥니다.

봄바람 하늘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나부깁니다.

연분홍 송이송이 바람에 지니
나비는 울며 울며 돌아섭니다.

25) 김억, 『김억 시선집』, 이프리북스, 2013.

이 시를 지도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고려하여 연결 독백하기의 방법으로 재구성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읽은 시: <연분홍> -김억
시 감상 활동: 연결 독백하기
<p><인물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인물에 대해 써 보자. (여성일까, 남성일까? 나이는? 어떤 모습일까? 등) : 여자 친구와 이별한 30대 초반의 남성 -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름을 지어 보자. : 기훈
<p><배경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를 읽고 떠오르는 풍경에 대해 써 보자.(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주변의 모습 또는 분위기 등) : 따뜻한 봄날, 살구꽃이 피고 지는 모습, 살구꽃 주위를 날다 나비가 돌아가는 모습
<p><사건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 일어났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 여자 친구와 이별한 한 남자가 따뜻한 봄날 살구꽃 주위를 너홀너홀 날아다니던 나비가 살구꽃이 지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내가 시 속의 화자라면…….</p> <p style="text-align: center;">시 속 화자의 독백을 모듬원끼리 돌아가며 이어서 해 봅시다.</p> <p>모듬원 1: 아! 좋다. 드디어 따뜻한 봄바람이 분다.</p> <p>모듬원 2: 봄이 되니 살구꽃이 피기 시작했군.</p>

모듬원 3: 나비도 반갑다고 너홀너홀 춤을 추고 있어.

모듬원 4: 봄이 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살구꽃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네.

모듬원 1: 오늘은 봄바람이 원망스럽다.

모듬원 2: 바람 때문에 살구꽃이 후두두두 떨어지고 있어.

모듬원 3: 나비가 슬퍼서 이제 가 버렸어…….

모듬원 4: 나도 슬프다…….

연결 독백하기는 학습자가 시 속의 화자가 되어 보는 활동이다. 학습자들은 다른 사람의 대사를 이어받으며 학습에 집중하게 되고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시의 화자가 처한 시 속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 체험으로 극대화하는 길도 열릴 것이다.

2) 인터뷰하기

인터뷰하기는 시 속의 등장인물이나 장소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텍스트 내의 잠재된 의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를 재구성하는 행위이다. 학습자가 다양한 반응을 끄집어내어 질문하고,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며 미미크리²⁶⁾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활동을 위해 우선 시 속의 등장인물 중 인터뷰할 대상을 정한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사람을 기자로 설정하여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빠뜨린 내용을 더 질문하기 위해 몇 사람의 보조 기자를 두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인터뷰할 내용을 즉흥적으로 생성하게 할 수도 있고, 기자가 미리 기사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인터뷰를 받는 대상도 시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늘려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교사는 질 높은 반응과 느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터뷰할 대상과 범위를 사전에 결정해서 학습자에게 먼저 알려주어 의도적으로 질문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시를 읽고 시 속의 인물과 가상 인터뷰 한 것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미미크리(mimicry)는 영어로 모방이나 흉내 등을 의미하는데, 자신을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라고 믿거나, 자기가 타인에게 믿게 하면서 노는 것이다. 놀이하는 자가 자신의 인격을 일시적으로 바꾸며 다른 인격으로 가장한다. 이것은 독자가 소설의 주인공에게서 또 관객이 영화의 주인공에게서 자신을 발견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 감상에 있어서도 작품의 화자를 독자와 동일시함으로써 미미크리가 진행될 수 있다.

<팔원> -백석27)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받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 리 묘향산 백오십 리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內地人) 주재소장(駐在所長)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뽁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이 시를 지도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고려하여 가상 인터뷰하기의 방법으로 재구성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읽은 시: <팔원> -백석
시 감상 활동: 가상 인터뷰하기
<인물 설정> -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인물에 대해 써 보자. (여성일까, 남성일까? 나이는? 어떤 모습일까? 등) : 초록색 저고리를 입은 어린 여자 아이, 버스 안의 승객

27) 백석,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름을 지어 보자.

: 순이, 영식

<배경 설정>

- 시를 읽고 떠오르는 풍경에 대해 써 보자.(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주변의 모습 또는 분위기 등)

: 일제 강점기, 겨울, 이른 아침, 텅빈 차 안

<사건 구성>

-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 일어났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 내지인 주재소장의 집에서 힘든 식모살이를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계집아가 버스에 올라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느 한 승객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팔원’의 승객과의 가상 인터뷰

기자: 그 어린 소녀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승객: 이른 아침 묘향산으로 떠나려는 승합자동차 안이었습니다.

기자: 소녀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승객: 손잔등이 밧고랑처럼 터져 있더군요. 진초록의 새 저고리를 입고 있기는 했지만, 울고 있는 것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가 차에 오를 때, 어린아이 둘과 주재소장이 소녀를 배웅했던 것으로 보아 아마 몇 해 동안 그 집에서 식모로 일하며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그 소녀는 어디로 간다고 하던가요?

승객: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삼촌 집에 잠시 들르려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 묘향산 어디에서 산다고 했거든요.

기자: 그 소녀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승객: 어린 아이가 혼자 밥을 짓고, 아이를 보고, 손이 푹푹 얼어서 걸레를 찼을 모습을 상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슬프고 불쌍해서 말이지요.

가상 인터뷰하기는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적 화자와 인터뷰하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상황과 정서를 정리하는 활동이다. 승객의 눈에 비친 광경을 중심으로 어린 소녀에게 닥친 상황을 세밀하게 이해하는 한편, 그 상황을 바라보는 승객의 감정을 다시 한 번 느껴 보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은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3) 희곡 쓰기

희곡을 쓸 때에는 우선 작품을 쓰는 의도, 즉 주제를 밝혀야 한다. 작가의 의도와 스토리가 맞아 떨어질 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사건이 필요하며, 작가의 의도를 담아내기에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탐구한다. 그리고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는 목적, 동기 등을 가지고 스토리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주제와 소재가 선정되고 구체적인 스토리가 정해지면 이야기의 전개방식을 구상해야 한다.

희곡의 플롯은 보통 <발단-전개-절정-하강-대단원>으로 구성된다. 이 단계에서 제목을 정하고 구체적 인물들을 설정하며 장면의 순서를 정한다. 결정한 장면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하는 구성 작업이 이루어지면 대사 쓰기에 들어간다. 대사 쓰기는 처음 장면과 끝 장면부터 쓰고 앞의 단계를 튼튼하게 다진 다음 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게 좋다.²⁸⁾

이와 같은 방법은 시의 정적인 내용이나 이미지를 연극적인 기법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하여 난해하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시의 내용들을 한층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시를 극화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야> -이육사²⁹⁾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28) 김병호, 「한국현대시 감상과 지도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36-37 참고.

29) 이육사, 『광야』, 미래사, 2002.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 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를 지도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고려하여 회곡 쓰기의 방법으로 재구성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읽은 시: <광야> -이육사
시 감상 활동: 회곡 쓰기
<인물 설정> -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인물에 대해 써 보자. (여성일까, 남성일까? 나이는? 어떤 모습일까? 등) : 독립활동을 하는 젊은 남성 -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름을 지어 보자. : 육사

<배경 설정>

- 시를 읽고 떠오르는 풍경에 대해 써 보자.(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주변의 모습 또는 분위기 등)

: 일제강점기 눈 내리는 추운 겨울, 신성한 광야

<사건 구성>

-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 일어났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던 추운 겨울, 육사는 광야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독립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시 속의 이야기를 희곡으로 써 보기

때: 일제시대

곳: 조국 광야

등장 인물: 육사, 일본인, 청년1, 청년2

육사는 일제의 생활터전이 되어 버린 광야에서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며 하늘을 쳐다본다.

육사:(혼잣말로) 휴~. 조국의 신성한 땅이 어떻게 이리 됐단 말이나…….

일제에 의해 노예가 되다시피한 이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본인: 더 빨리 움직이란 말이야! 이곳은 일본제국의 새 역사가 시작될 곳이란 말이다!!

육사: 이럴 수가……. 유구한 역사의 한민족이 일제란 섬나라에 무참히 짓밟히다니! 내가 이 시대의 끝을 보리라!

그 날 이후 육사는 비밀스럽게 자신과 뜻을 함께 할 이들의 모임을 만들고 있다.

청년1: 이제 우리가 나서서 나라를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밤이 기회예요.

청년2: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빨리 실행시킵시다!

모두들: 나갑시다! 우리나라를 되찾아 옵시다!

해질 무렵, 나라를 걱정하는 수백 명의 애국자들은 일본 제국에 대한 최초의 대항을 시작한다.

육사: 우리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이곳에 모여 다함께 밝은 횃불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나라를 짓밟은 자들을 이 신성한 광야에서 몰아냅시다!

일제는 만세를 외치는 민중들을 총칼로 제압한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만세 소리는 일제의 총칼에 최후를 맞는 순간까지도 그치지 않고 방방곡곡에 메아리친다.

육사: 내가 비록 여기서 죽지만, 이 한 몸 바쳐 모든 이들이 이 광야에서 독립의 기쁨을 누리게 하리라!

육사는 독립된 그 날을 생각하며 조국의 광야에서 최후의 숨을 거둔다.

이처럼 한 편의 시를 연극적 기법을 적용하여 극화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시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몸으로 체득하며 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화자의 일기 쓰기

시의 내용을 이해한 후 독자가 시의 화자가 되어 하루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시를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며,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렇게 표현한 의도를 읽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활동이 된다.

시를 읽고 화자의 입장이 되어 일기를 쓴 것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안 일> -박두순³⁰⁾

지하철 보도 계단 맨바닥에
손 내밀고 엎드린
거지 아저씨 손이 텅 비어 있었다.
비 오는 날에도
빗방울 하나 움켜쥐지 못한
나뭇잎들의 손처럼.

동전 하나 놓아 줄까
망설이다 망설이다
그냥 지나가고

내내
무얼 잊어버린 듯…….
집에 와서야
가슴이 비어 있음을 알았다.
거지 아저씨의 손처럼.

마음 한 귀퉁이
잘라 주기가 어려운 걸
처음 알았다.

이 시를 지도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고려하여 화자의 일기 쓰기의 방법으로 재구성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읽은 시: <처음 안 일> -박두순
시 감상 활동: 화자의 일기 쓰기
<인물 설정> -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인물에 대해 써 보자. (여성일까, 남성일까? 나이는?)

30) 박두순, 『누군가 나를 지우개로 지우고 있다』, 예림당, 1996.

어떤 모습일까? 등)

: 남자 고등학생

-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름을 지어 보자.

: 유찬

<배경 설정>

- 시를 읽고 떠오르는 풍경에 대해 써 보자.(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주변의 모습 또는 분위기 등)

: 비오는 이른 아침,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지하철역 계단

<사건 구성>

-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 일어났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 유찬은 등갓길에 구걸하는 거지 아저씨를 만났다. 동전을 놓아줄까말까 망설이다 그냥 돌아선다. 그 일이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린다.

시 속의 화자가 되어 일기를 써 봅시다.

제목: 거지 아저씨

2015. 3. 15. 날씨: 맑음

오늘 아침 등갓길에 거지 아저씨를 보았다. 지하철역 보도 계단 맨바닥에 엎드린 채 손을 내밀고 있었다. 초라한 차림이었고, 다리 한 쪽이 없는지 한 쪽 바짓가랑이가 헐렁거렸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지만 아무도 그 아저씨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어제 할머니께 받은 3000원이 있었다. 방과 후에 떡볶이를 사 먹을 생각으로 챙겨 갔었다. 그 돈을 드릴까말까 망설였다. 결국 그 앞을 그냥 지나갔다. 자꾸 그 아저씨의 빈 손이 떠오른다. 아저씨께 돈을 드렸어야 했는데..... 후회가 된다. 평소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꼭 도움을 주어야겠다.

화자의 생각에 공감하며 화자의 일기를 써보는 활동은 단순히 시에 대한 내용 이해나 지식 습득을 넘어 문학적 표현이나 창작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학습 방법이 될 것이다.

5. 그림으로 표현하기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시를 읽고 한 장의 그림이나 여러 컷의 만화로 등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으로 문학적 언어를 다른 표현 매체로 전환시키는 학습 활동이다. 이 방법은 다양한 매체의 활동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의 환경에 부응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의 흥미와 결부시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활동이라 하겠다.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물, 사건, 배경을 먼저 설정하고 시 속의 장면을 떠올려 그림이나 만화로 표현해 봄으로써 시를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상하게 될 것이다.

시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길> -윤동주³¹⁾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31)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미래사, 2001.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 시를 지도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재구성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읽은 시: <새로운 길> -윤동주
시 감상 활동: 시의 장면을 그림이나 만화로 표현하기
<p><인물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인물에 대해 써 보자. (여성일까, 남성일까? 나이는? 어떤 모습일까? 등):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젊은 남성 -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름을 지어 보자.: 동주
<p><배경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를 읽고 떠오르는 풍경에 대해 써 보자.(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주변의 모습 또는 분위기 등) : 새들이 날아다니고 꽃들이 피어있는 봄날의 시골길
<p><사건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 일어났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 한 남자가 길을 가고 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 끝없이 이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다.



시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이나 만화로 구성해 보는 것은 시의 주제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표현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시의 핵심 주제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 읽기’ 활동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6. 비평하기

문학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일은 그 작품의 모든 내용과 형식요소에 대한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 작품을

읽고 이해·해석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는 비평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시를 비평해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여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시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질문의 형식으로 던져 줄 필요가 있다. 시 비평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에 대한 나의 평가		
평가 항목	평가의 근거가 되는 시 구절이나 내용 등	평가 (각 항목 점수 5,4,3,2,1)
1	시 제목과 내용, 글감은 서로 잘 어울리는가?	점
2	사물을 잘 관찰하여 비유나 상징적 표현으로 적절하게 나타냈는가?	점
3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가?	점
4	시의 전체적 분위기를 말할 수 있는가?	점
5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는가?	점
종합 점수:		점

비평하기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시 감상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 수업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것이다. 또한 시 작품에 대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유발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시를 보는 안목 또한 기르게 될 것이다.

IV. 수업 모형 설계와 교수·학습 지도안 구안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스토리텔링 수업 전략과 모형, 다양한 시 지도 방법 등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고 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1. 시 교수·학습 모형

필자는 학습자 중심의 시 읽기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학습자의 반응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경규진의 반응중심 학습 모형³²⁾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제, 수업 절차와 단계별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할 차례이다.

1) 수업 절차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학습의 단계를 ‘이야기 나누기’, ‘이야기 만들기’, ‘이야기 공유하기’ 세 단계로 설정하였다. 시 감상 수업을 할 때 모든 단계를 다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각 단계를 거치더라도 제시된 활동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와 학습자의 흥미 및 능력, 수업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활동하게 하며 융통성 있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의 수업 절차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2) 경규진의 반응중심 학습 모형은 학습자의 반응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바람직한 반응을 유도해 내고 있다. 1단계: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 → 반응의 형성, 2단계: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 반응의 명료화, 3단계: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 → 반응의 심화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용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계획, 평가와 같은 단계는 생략하고 지도 단계만을 모형화 하고, 학생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경규진, 「반응 중심의 문학 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		
단계	주요 활동	학습 요소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 모둠 및 전체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 및 목표 확인 - 시 낭송하기 - 시의 내용 파악하기 - 분위기와 정서 이야기 - 심상 이야기 - 표현 이야기 - 운율 이야기
이야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배경·사건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화자 - 시의 배경 - 시 속의 상황 - 주체적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사화 하기 · 화자의 일기 쓰기 · 연결 독백하기 · 가상 인터뷰하기 · 희곡 쓰기 	
이야기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문 쓰기 · 감상화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 나누기 - 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평하기 	

‘이야기 나누기’ 단계는 하브루타 및 모둠 토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시의 형식적인 특징 및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 만들기’ 단계는 학습자들이 시 속의 상황을 이해하며 시 속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구성해 봄으로써 시를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또한 ‘이야기 공유하기’ 단계에서도 학습자들은 서로의 감상을 나누고 시를 비평해 보며 문학적 반응을 확대시키고 시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2) 단계별 지도 방법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의 지도 방법을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야기 나누기

이야기 나누기 단계는 시를 자신이 느낀 대로 이야기하고 다른 독자와 소통하며 작품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들은 시를 적극적으로 감상하게 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며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는 짝끼리 하는 하브루타 활동과 모둠 및 전체 토론 활동으로 구성된다. 짝끼리 하브루타 활동을 먼저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다양한 답이 예상되는 질문은 모둠 및 전체 토론을 통해 작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하브루타 학습은 동기유발을 위한 질문, 시 낭송하기, 시의 내용 파악하기, 분위기 와 정서 이야기, 심상 이야기, 표현 이야기, 운율 이야기, 질문 만들기 등으로 구성하여 텍스트 이해를 돕는다.

동기 유발을 위한 질문은 제목과 관련된 이미지나 추억을 떠올려 보게 하는 내용, 시인에 대한 배경지식을 묻는 내용 등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해봄으로써 학습자들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시를 적극적으로 학습하려는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시 낭송하기는 혼자 읽기, 짝과 한 행씩 번갈아 읽기, 짝과 1연씩 번갈아 읽기, 짝과 함께 맞추어 읽기 순으로 진행한다. 시를 여러 번 낭송함으로써 시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시의 운율이나 말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껴보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학습자들은 소리 내어 읽고 짝과 번갈아 읽으면서 시에 집중하게 되고 시의 운율감이나 말의 아름다움을 보다 더 잘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의 내용 파악하기는 작품이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의미, 즉 주제를 중심으로 시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시 속에서 말하는 이의 느낌이나 생각을 문장으로 진술하면 시의 주제가 될 것이다. 미숙한 독자들은 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짝과의 하브루타 활동을 통해서 또는 다음 단계인 교사나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이야

기하는 과정을 통해 오류가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분위기와 정서 이야기, 심상 이야기는 시를 읽고 나서 떠오르는 이미지와 시의 분위기, 시에서 느껴지는 말하는 이의 주된 정서를 얘기해 보는 활동이다. 시인은 심상을 통해서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화시켜 전달한다. 시의 심상은 우리의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불러 일으켜 대상들을 직접 대하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또한 심상은 정서를 불러 일으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구실을 한다. 시의 주된 심상을 얘기해보고 시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활동은 곧 시에서 사용된 정서를 느껴보는 활동이기도 하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의 분위기와 정서 파악은 물론, 시에 사용된 시어나 소재 등이 시의 분위기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표현 이야기는 마음에 드는 표현이나 인상적인 표현을 찾아보고, 비유나 상징적 표현을 찾아 그 의미를 짐작해보는 활동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를 적극적으로 읽게 되고 함축적인 시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시에서 사용된 비유를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짝과의 대화나 전체 토론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는 교사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운율 이야기는 시의 리듬감을 느껴 보고 운율 형성 요인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시의 운율은 소리의 규칙적 반복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그 규칙성은 인간에게 안정감과 미적 쾌감을 준다. 또한 시적 인상을 더욱 깊게 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어조 형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학습자들은 시의 운율적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통해 시의 음악성과 예술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시를 즐겁게 감상하게 될 것이다.

(2) 이야기 만들기

이야기 만들기는 ‘시는 시인이 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정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시를 읽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또는 느낀 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봄으로써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 정서 등을 아우르며 시를 주체적으로 감상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학습자들은 시 속의 세상은 물론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정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맛보기 어려운 심미적 체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만들기 단계는 인물·배경·사건 설정하기, 서사화 하기, 화자의 일기 쓰기, 연결 독백하기, 가상 인터뷰하기, 희곡 쓰기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인물, 배경, 사건을 설정하고, 나머지 활동은 시 본문이나 다양한 학습 환경에 따라 또는 학습자들의 선택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활동하게 한다.

인물 설정은 시의 화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학습자들은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인물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나이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모습일지를 떠올려 보며 이름을 지어 보게 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의 화자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시의 화자를 우리의 삶과 무관한 존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 또는 나 자신과 연관 지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배경 설정은 시에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사회·문화적 배경, 계절적 배경, 시간적·공간적 배경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학습자들은 시를 읽고 떠오르는 시대적 배경과 여러 가지 풍경 등을 떠올리며 이야기 속의 배경을 설정하게 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 속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성찰해 보게 될 것이다.

사건 구성은 시 속의 상황 또는 시의 화자가 얘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학습자들은 이야기 속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누구이고 언제 어디서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며, 구체적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구성해 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 속에 내재된 인식적·윤리적·심미적 가치를 자신의 삶에 비추어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 면에서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만들기 단계의 활동은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시의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쉽고 자세하게 풀어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모습과 의미를 찾는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삶의 다양한 모습과 생각, 가치 있는 체험들을 짧은 시 속에 아름다운 언어와 운율로 표현해내는 시의 예술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될 것이다.

(3) 이야기 공유하기

이야기 공유하기는 시에 대한 감상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고 자신의 감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단계이다. 감상문 쓰기, 감상화 그리기, 비평하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모든 활동을 다 할 수도 있지만 텍스트와 학습자의 흥미 및 능력, 수업 상황에 따라 감상문 쓰거나 감상화 그리기 활동은 선택하여 활동하는 것도 좋다.

감상문 쓰기는 시를 읽고 난 느낌이나 생각을 정리하여 쓰는 활동으로 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자유롭게 쓰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나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시의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유도한다.

감상화 그리기는 시의 주제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이나 이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활동이다. 자유롭게 표현하되, 인물·사건·배경이 모두 드러나게 그려보도록 유도한다. 학습자의 흥미에 따라 만화의 형식으로 표현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다.

비평하기는 시의 내용과 형식 요소에 대한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활동이다. 시의 제목과 내용은 잘 어울리는지, 비유나 상징이 적절한지, 우리말의 아름다움은 잘 살리고 있는지 등 근거를 들어가며 평가해보고 점수를 부여하게 한다. 또한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짐작할 수 있는지, 시의 분위기를 말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게 함으로써 시에 대한 비평은 물론 학습자가 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게 한다.

감상문 쓰거나 감상화 그리기 활동이 끝나면 발표의 시간을 가져 다른 학습자들과 감상을 나누게 한다. 자신과 비슷하거나 또는 색다른 다양한 감상을 보며 학습자들은 시에 대한 반응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 감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감상문이나 감상화 발표가 끝나면 비평하기 학습지를 활용해 시를 평가해보게 한다. 각자 점수를 부여한 후, 다른 친구들이 준 점수와 비교하고 평가의 근거를 들며 이야기해 보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를 능동적으로 감상하고 시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2. 시 교수·학습 지도안

지금까지 탐구해 온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시 교수·학습 지도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업 단위 및 학습 목표

가. 단위: 1. 문학의 가치, (1) 시와 성찰³³⁾

나. 단위 학습 목표

문학 작품을 통해 학습자는 자아를 성찰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문학 작품을 통해 만나게 되는 다양한 가치관, 여러 삶의 모습, 사람과 삶의 관계 및 사람과 사회의 관계 등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자아를 성찰할 수 있게 되며, 타인과 세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실체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자기 확인과 변화의 과제를 부여받고 답을 모색하게 된다. 또 나와 같으면서도 다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넓히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며, 삶의 다양성과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된다.

이 단원의 학습은 문학이 지니는 가치를 알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아 성찰을 통해 내면세계를 확충하고 주변 세계를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표를 둔다.

2) 단위 교수·학습 계획³⁴⁾

이 단원은 시 두 편을 감상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의미를 이끌어내는 활동과 인간의 삶에서 시가 지니는 가치를 파악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시에는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를 읽고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시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는 ‘생각 깨우기’ 활동과 그림을 보고

33) 수업 단위와 학습 제제는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국어 ⑤, 노미숙 외, 천재교육, 2013.)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34) 교사용 지도서 국어 ⑤ ~ ⑥, 노미숙 외, 천재교육, 2013.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말하며 ‘길’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읽기 전에’ 활동이 이루어진다. 2~6차시에는 ‘봄길’과 ‘저녁 한때’를 감상하고 시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 이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감상함으로써 시가 인간의 삶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단원	학습 제재	교과서 내용	교수·학습 내용	차시
(1) 시와 성찰	들어가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울 내용 - 단원의 열쇠 - 단원 펼쳐 보기 - 목표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에서 배울 내용, 학습 목표 안내하기 - 학생 스스로 아는 내용 점검하고 학습 목표 세우기 	1
	생각 깨우기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읽기 전에 (이중섭, ‘길 떠나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 - 시를 읽고 느낀 점 말해 보기 - 그림엽서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말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감동을 주는 이유 생각해 보기 - 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생각해 보기 	
	‘봄길’ 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학습 -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읽기 - 시의 내용과 표현 이해하기 -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감상하기 	2~6
	‘저녁 한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학습 -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읽기 - 시의 아름다움 이해하기 -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감상하기 	
생각 모으기		- 소단원 학습 내용 점검하기	-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기	

본시는 단원 학습 계획 총 7차시 중 2차시에 해당하는 학습으로 정호승의 <봄길>을 학습하게 된다. 본시 학습 개관 및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본시 학습 개관 및 지도상의 유의점

정호승의 <봄길>은 봄길을 걷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표현한 시이다. 특정 어구의 반복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를 스스로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나는 말하는 이의 태도에 주목하여 시를 감상하고 시에 담긴 가치를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며, 시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성찰함으로써 시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지도한다. 시는 내용과 표현이 어우러져 주제를 형상화하므로 작품의 세부 내용과 표현을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시에 표현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또한 시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시에 담긴 가치를 학생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4) 본시 학습 제재

<봄길> - 정호승³⁵⁾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35) 정호승, 『사랑하다가 죽어 버려라』, 창비, 2009.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시의 지도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본시 학습 지도안

본시에서는 정호승의 <봄길>을 학습하게 된다. 학습 목표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관련 성취 기준과 단원 학습 목표에 부합되도록 ‘시의 내용과 표현상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시를 감상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야기 나누기 단계에서는 하브루타 활동과 모둠 및 전체 토의 활동을 통해 시의 내용 및 분위기, 심상, 운율,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야기 만들기 단계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물·사건·배경을 설정하고 ‘서사화 하기’나 ‘화자의 일기 쓰기’ 활동을 선택하여 하며 시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야기 공유하기 단계에서도 감상문 쓰거나 감상화 그리기, 비평하기 활동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감상을 공유하며 시 감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대단원	1. 문학의 가치	소단원	(1) 시와 성찰, 봄길		
대상 학년	중학교 1학년	쪽수	p.6~p.8	차시	2/7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내용과 표현상 특징을 말할 수 있다. ·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시를 감상할 수 있다. 				
관련 성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51. 비유, 운율, 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 2954. 표현에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수업 방법 및 자료
동기 유발	<p><동기 유발 및 학습 목표 확인></p> <p>* 제목 ‘봄길’이라는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p> <p>- 따뜻함, 꽃이 피어 있는 모습, 평화로움, 시골길, 길을 걷어가는 사람 등</p> <p>* 학습 목표 확인</p>		전체 토의
이야기 나누기	<p><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p> <p>* 시 낭송하기</p> <p>1. 시를 소리 내어 읽어 보자. : 짝과 1행씩 번갈아 읽기 → 짝과 함께 맞추어 읽기</p> <p>* 분위기 이야기</p> <p>2. 시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 따뜻하다, 포근하다, 밝고 희망차다, 힘차다 등</p> <p>* 시의 내용 파악하기</p> <p>3. 말하는 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봄길을 걷어가고 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개척하고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등</p> <p>4. ‘길’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 인생, 삶, 희망 등</p> <p>5. ‘길이 끝나는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 : 절망적인 상황, 사랑이 끝나 희망이 없어진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등</p> <p>6. ‘봄길을 걷어가는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 :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사람, 희망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등</p> <p>7. 시인이 시를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 :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삶의 자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 등</p>	20분	짝활동 학습지

<p>이야기 나누기</p>	<p>8. ‘길이 끝나는 곳’에 서 있다고 느꼈던 경험(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힌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 :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밀려 썼다는 걸 알았을 때, 친한 친구와 싸우고 나서 화해하지 못했을 때 등</p> <p>9. 내가 만일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8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해 보자. : 이미 저지른 실수는 잊어버리고 다음 시험을 대비할 것이다, 친구에게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청했을 것이다 등</p> <p>* 심상 이야기</p> <p>10. 시를 읽고 나서 어떤 이미지(심상)가 떠오르는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 시각적 심상</p> <p>11. 어느 부분(시어 또는 시구)에서 특히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가? : 봄길,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등</p> <p>* 표현 이야기</p> <p>12. 마음에 드는 표현이나 인상적인 표현을 찾아보자. 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 ‘~이 있다’의 반복 ▶ 말하는 이의 확고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다 등</p> <p>* 운율 이야기</p> <p>13. 운율이 잘 느껴지는가? 잘 느껴진다면 어떤 점 때문에 운율감이 잘 살아날까? : 네,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 ▶ 길, 끝나는 곳, 사랑, 사람이 있다 등,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등</p> <p>* 질문 만들기</p> <p>14. 위 질문 외에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p>	<p>작활동</p>
----------------	-------------------------------------------------------------------------------------------------------------------------------------------------------------------------------------------------------------------------------------------------------------------------------------------------------------------------------------------------------------------------------------------------------------------------------------------------------------------------------------------------------------------------------------------------------------------------------------------------------------------------------------------------------------------------------------------------------------------------------------------------------------------------------------------------------------------------------------------------------------------------------------------------------------------------------------------------------------------------------------------	------------

이야기 나누기	<p>질문해 보자. : 시인은 왜 하필 여러 길 중 ‘봄길’이라고 했을까? 등</p> <p><모둠 및 전체 토의></p> <p>* 핵심 질문(6,7,12,13)에 대해 모둠 토의를 해 보자. * 14의 질문 중 베스트 질문을 선정해 보자.(모둠 토의) * 모둠에서 선정한 베스트 질문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자.(전체 토의) * 친구들 중에서 ‘봄길을 걷어가는 사람’과 닮은 사람은 누구이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p>		<p>모둠 토의</p> <p>전체 토의</p>
이야기 만들기	<p><인물, 배경, 사건 설정></p> <p>* 인물 설정</p> <p>-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인물에 대해 써 보자. (여성일까, 남성일까? 나이는? 어떤 모습일까? 등) -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름을 지어 보자.</p> <p>* 배경 설정</p> <p>- 시를 읽고 떠오르는 풍경에 대해 써 보자.(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주변의 모습 또는 분위기 등)</p> <p>* 사건 구성</p> <p>-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 일어났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p>	15	<p>개별 학습</p>
	<p><내가 만드는 이야기> - 선택 활동</p> <p>* 서사화 하기</p> <p>- 시 속에 담긴 이야기를 만들어보자.</p> <p>* 화자의 일기 쓰기</p> <p>- 시 속의 화자가 되어 일기를 써 보자.</p> <p>▶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여 활동한다. ▶ 각자 만든 이야기를 발표한다.</p>		<p>개별 학습</p> <p>전체 학습</p>

<p>이야기 공유하기</p>	<p><시 감상 표현하기> - 선택 활동</p> <p>* 감상문 쓰기</p> <p>- 시를 읽고 난 느낌이나 생각을 정리하여 써 보자. (자유롭게 쓰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나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시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p> <p>* 감상화 그리기</p> <p>-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이나 이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보자.(자유롭게 표현하되, 인물, 사건, 배경이 모두 드러나게 그려본다. 학습자의 흥미에 따라 만화의 형식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좋다.)</p> <p>▶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여 활동한다. ▶ 감상문 쓰거나 감상화 그리기 활동이 끝나면 발표의 시간을 가져 다른 학습자들과 감상을 나눈다.</p>	<p>10</p>	<p>개별 학습</p> <p>전체 학습</p>
	<p><비평하기></p> <p>* 비평하기 학습지를 활용해 시를 평가해본다. * 각자 점수를 부여한 후, 다른 친구들이 준 점수와 비교하고 평가의 근거를 들며 이야기해 본다.</p>		<p>모둠 학습</p>
<p>차시 예고</p>	<p><과제 제시 및 차시 예고></p> <p>* 소단원 평가지를 풀어오도록 과제로 제시한다. * 다음 시간에 배울 단원을 미리 읽어 오도록 한다.</p>		

필자는 이 지도안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의 단계를 1차시로 계획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서사화하기, 화자의 일기 쓰기, 감상문 쓰기, 비평하기 등의 활동을 이미 다른 수업에서 부분적으로 실행해보고 학생들에게 익숙해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시 수업의 다

양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능력 또는 시 제재의 함축성 정도와 성격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의 단계를 2차시나 3차시 등으로 융통성 있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습 활동 사례

필자는 위에서 제시한 본시 학습 지도안을 바탕으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남자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학습 활동 사례를 이야기 나누기, 이야기 만들기, 이야기 공유하기의 각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야기 나누기

이야기 나누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활동’을 하였다. 텍스트 이해를 위해 짝끼리 질문을 제시하고 답해 보는 활동을 번갈아가며 충실히 하게 하였다. 짝끼리 하는 활동이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학생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어렵게 생각했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 질문에 대한 모둠 토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수정·보완하며 시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길’이 상징하는 의미를 ‘인생, 청춘, 연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등으로 받아들이고 ‘봄길을 걷어가는 사람’을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사람, 청춘을 즐기는 사람, 암울한 세상에서 스스로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등으로 이해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이해하고 운율 이야기, 심상 이야기, 표현 이야기 등에서도 다른 학습자와 의견을 교환하며 비교적 시를 잘 이해하였다. 전체 토의에서는 ‘봄길을 걷어가는 사람을 닮은 친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곳곳하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친구들에 대해 얘기하는 등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활동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활동 사례 1>

내가 읽은 시: 봄길 -정호승-	
시 감상 활동: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 - 제목 '봄길'이라는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봄, 따듯함, 시골의 길, 사랑, 꽃 밭
* 시 낭송하기 1. 시를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혼자 읽기 → 짝과 1행씩 번갈아 읽기 → 짝과 1연씩 번갈아 읽기 → 짝과 함께 맞추어 읽기	
* 분위기 이야기 2. 시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짝: 따뜻한 느낌이다 나: 희망적이다
* 시의 내용 파악하기 3. 말하는 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짝: 많은 하교 있다 나: 선택의 간담기에 놓였다
4. '길'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짝: 인생 나: 경험
5. '길이 끝나는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	짝: 인생의 끝 나: 정권의 끝
⑥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	짝: 사랑하는 사람 나: 정권을 즐기는 사람

7. 시인이 시를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	작: 인생을 즐겨라 나: 청춘은 즐겨라
8. '길이 끝나는 곳'에서 있다고 느꼈던 경험(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힌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	작: 시험 기간 끝날 때 답이 다 못지었을 때 나: 중등학교가 끝날 때
9. 내가 만일 '불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8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해 보자.	작: 좋은 마음을 가진다 나: 긍정적인 마음은 가진다
* 심상 이야기 10. 시를 읽고 나서 어떤 이미지(심상)가 떠오르는가?(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작: 좋은 시각 나: 들의 촉각
11. 어느 부분(시어 또는 시구)에서 특히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가?	작: 보라 나: 사람이 끝난 곳에서도
* 표현 이야기 12. 마음에 드는 표현이나 인상적인 표현을 찾아 보자. 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작: 보라 의미: 그것만 보고 그 순간만 느껴라 나: 보라 의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라

* 운율 이야기 13. 운율이 잘 느껴지는가? 잘 느껴진다면 어떤 점 때문에 운율감이 잘 살아날까?	작: 그렇다 그런 것이다 나: 그렇다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길, 사랑, 스르르 등)
* 질문 만들기 14. 위 질문 외에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보자.	작: 봄여름가을겨울 다 왔는데 왜 봄인가? 나: 왜 이 시의 제목이 봄인가?
<모둠 토의> * 핵심 질문(6,7,12,13)에 대해 모둠 토의를 해 보자. * 14의 질문 중 베스트 질문을 선정해 보자.	왜 이 시의 제목이 봄인가?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활동 사례 2>

내가 읽은 시: 봄길 (정호승)	
시 감상 활동: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 - 제목 '봄길'이라는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꽃길, 공원, 벚꽃, 시골길
* 시 낭송하기 1. 시를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혼자 읽기 → 짝과 1행씩 번갈아 읽기 → 짝과 1연씩 번갈아 읽기 → 짝과 함께 맞추어 읽기	
* 분위기 이야기 2. 시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p>짝: 희망이 있다.</p> <p>나: 어둠 속에서도 '봄길, 사랑'이라는 따뜻함이 느껴진다.</p>
* 시의 내용 파악하기 3. 말하는 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p>짝: 짝사랑하는 사람들</p> <p>나: 암울한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사람들.</p>
4. '길'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p>짝: 인생, 연애 등 / 집</p> <p>나: 행복한 재미있는 시대/세상</p>
5. '길이 끝나는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	<p>짝: 연애가 끝나는 길</p> <p>나: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시대의 시작</p>
6.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	<p>짝: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사람</p> <p>나: 암울한 세상에서 스스로 다른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p>

7. 시인이 시를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	작: 어떤 일을 하고 후회하지 마라.
	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어라.
8. '길이 끝나는 곳'에서 있다고 느꼈던 경험(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힌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	작: 사랑을 못보고 집에 돌아갈 때
	나: 시험문제를 1문제 남겨두었는데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을 때가 어렵고 절망스럽다.
9. 내가 만일 '봄길을 걸어가 는 사람'이라면 8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해 보자.	작: 그냥 깔끔하게 혼난다.
	나: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 실상 이야기	작: 어두운 곳에서도 파스한 빛이 있다.
10. 시를 읽고 나서 어떤 이미지(실상)가 떠오르는가?(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나: 차갑고 어두운 이미지 속 따뜻함
	작: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11. 어느 부분(시어 또는 시구)에서 특히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가?	나: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 는 사랑이 있다.
	작: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랑이 있다
* 표현 이야기	작: →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 있다.
	나: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 는 사랑이 있다. →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 있다.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활동 사례 3>

<p><전체 토의> * 각 모듈에서 선정한 베스트 질문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자.</p> <p>* 친구들 중에서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짧은 사람은 누구이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p>	<p>양준 골프를 열심히 한다 힘든 스포츠인데 의지군 버텨냄</p>
--------------------------------------------------------------------------------------------------------------------------------	-----------------------------------------------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활동 사례 4>

<p><전체 토의> * 각 모듈에서 선정한 베스트 질문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자.</p> <p>* 친구들 중에서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짧은 사람은 누구이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p>	<p>양기우 (항상 뛰고 도전 정신이 뛰어나서)</p>
--------------------------------------------------------------------------------------------------------------------------------	------------------------------------

2) 이야기 만들기

이야기 만들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시를 읽고 이직을 고민하는 30대 남성, 사업에 실패한 50대 남성, 여자 친구와 이별한 20대 남성 등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떠올렸다. 각 인물들이 자신들의 삶에 닥친 크고 작은 시련들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발표하고, 친구들이 만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시를 흥미롭게 감상하였다.

이야기 만들기 활동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야기 만들기 활동 사례 1>

내가 읽은 시: <u>봄길</u>
<p>• 이야기 만들기 -서사화하기/화자의 일기 쓰기(텍 1)</p> <p><인물 설정> -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인물에 대해 써 보자. (여성일까, 남성일까? 나이는? 어떤 모습일까? 등) 30대 남성이 직장을 바꿀까 말까 생각하며 봄길을 걷고 있다. -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름을 지어 보자. 이적남</p> <p><배경 설정> - 시를 읽고 떠오르는 풍경에 대해 써 보자. (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주변의 모습 또는 분위기 등) 21세기 봄이고 낮이며 차분한 분위기.</p> <p><사건 구성> -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 일어났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봄에 30대 남성이 낮에 직장을 바꿀까 말까 생각하고 있다.</p> <p>- 인물, 사건, 배경이 (드러나게) 이야기로 써 보자. / - 시 속의 화자가 되어 일기를 써 보자. (텍 1) 봄길의 활자판 30대 가장 남성이 봄길을 걷고 있다. 이적남은 많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봄길을 걸으며 직장을 바꿀지 말지 생각 중이다. 하지만 그는 세전에도 한번 직장이 맘에 안 들어서 한번 바꿨었다. 하지만 또 직장이 마음에 안 맞아서 그는 자신이 가고 싶은 회사에 갈까 말까 생각 하는 중이다. 그런데 그가 직장을 바꾸면 지금 회사보다 월급이 낮기 때문에 자비로 학원을 몇 개 경영해 본다. 그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는 여자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왜냐하면 옛날에 선생님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데 진짜 사는 것 이라고 말한 것이 갑자기 떠올라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봄길을 신나게 달렸다.</p>

<이야기 만들기 활동 사례 2>

내가 읽은 새봄길 - 정훈동
<p>• 이야기 만들기 - 서사화하기/화자의 일기 쓰기(텍 1)</p> <p><인물 설정> -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인물에 대해 써 보자. (여성일까, 남성일까? 나이는? 어떤 모습일까? 등)</p> <p>남성, 50세, 사업실패한 절망하는 50세, 늙은 밭 김00</p> <p>-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름을 지어 보자.</p>
<p><배경 설정> - 시를 읽고 떠오르는 배경에 대해 써 보자. (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주변의 모습 또는 분위기 등)</p> <p>계절: 봄 가래수길(벚꽃이 피어있는) 벚꽃 최 필이 지는</p>
<p><사건 구성> -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 일어났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p> <p>사업실패, 50세 김00, 김00이 50세가 되는 해, 퇴임, 회사가 부도나서</p>
<p>- 인물, 사건, 배경이 드러나게 이야기로 써 보자. / - 시 속의 화자가 되어 일기를 써 보자.(텍 1)</p> <p>오늘 나는 50세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은 동시에 나의 회사가 부도나났다. 회사는 다른 곳에서 인수했고 나는 사장에서 하루아침에 실각자가 되었다. 나는 가래수길을 걸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포기할까?", "다시 회사,"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하지만 난 내 회사를 차린 것인데 성공 하여 평평하게 다시 살 것이다.</p>

<이야기 만들기 활동 사례 3>

내가 읽은 시: <u>봄길 - 경중</u>
* 이야기 만들기 - 서사화하기/화자의 일기 쓰기(택 1)
<p><인물 설정></p> <p>-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인물에 대해 써 보자. (여성일까, 남성일까? 나이는? 어떤 모습일까? 등)</p> <p style="text-align: center;">20여 남성, 여학생과 헤어짐</p> <p>-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름을 지어 보자. <u>김정환</u></p>
<p><배경 설정></p> <p>- 시를 읽고 떠오르는 풍경에 대해 써 보자. (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주변의 모습 또는 분위기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여름, 바닷길, 다릿길, 인문, 솔솔람, 사랑, 극복</p>
<p><사건 구성></p> <p>-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 일어났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여학생과 헤어짐 남자가 혼자 솔솔람 바닷길이 풀릴라는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새 발리 여자를 알고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p> <p>- 인물, 사건, 배경이 드러나게 이야기로 써 보자. / <u>시 속의 화자가 되어 일기를 써 보자(택 1)</u></p>
<p>2015. 3. 19</p> <p>제목: 이별</p> <p>오늘 다녀 그녀가 말을 꺼냈다. 그동안 서자 점점 멀어 지고 있는 듯 했는데 이렇게 헤어지고 말았다. 그녀와의 추억이 어리숙에 떠오른다. 너무 힘들다. 그녀와 함께 걷던 그 길을 기억한다. 혼자 걷는다. 그녀같은 사랑을 또 만날 수 있을까?</p>
<p>2015. 3. 21</p> <p>제목: 새로운 여학생</p> <p>말 회시에 새로운 여학생이 들어왔다. <u>김정환</u> 그녀(전여친)의 기억이 " "으로 채워지는 듯 하다.</p>
<p>2015. 3. 24</p> <p>제목: 극복</p> <p>그녀와 서하게 되었다! 행복하다!</p>

3) 이야기 공유하기

이야기 공유하기 단계에서는 시를 읽은 후의 감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과 시를 비평하는 활동을 하였다. 감상문을 쓰는 활동 자체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짧은 감상문을 허용하였으며, 감상화는 자유롭게 표현하되 장면을 구성할 때 간단한 대사를 삽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학생들은 흥미나 능력에 따라 두 가지 모두 또는 하나의 활동을 선택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또는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시의 의미를 각자 나름대로 잘 해석하였다. 발표의 시간을 가져 다른 학습자들과 감상을 나누고, 비평하기 학습지를 활용해 시를 평가하는 활동도 하였다. 비평하기 활동에서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교사가 시범을 보이자, 평가의 근거를 들며 각자 점수를 부여하고 다른 친구들이 준 점수와 비교하며 시를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상 표현하기 활동과 비평하기 활동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 감상 표현하기 활동 사례 1>

* 시 감상 표현하기 - 감상문 쓰기/ 감상화 그리기(택 1)

<감상문 쓰기>

- 시를 읽고 난 느낌이나 생각을 정리하여 써 보자.
(자유롭게 쓰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나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시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

살면서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겪곤한다. 어떤 고난들은
극명 극복할수 있지만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있다. 난 앞으로 고난을 만나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빨리 극복해야겠다고 느꼈다.

<감상화 그리기>

-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이나 이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보자.(자유롭게 표현하되, 인물, 사건, 배경이 모두 드러나게 그려본다.)

<시 감상 표현하기 활동 사례 2>

* 시 감상 표현하기 - 감상문 쓰기/ 감상화 그리기(택 1)

<감상문 쓰기>

- 시를 읽고 난 느낌이나 생각을 정리하여 써 보자.

(자유롭게 쓰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나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시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나의 형이 생각났다.

형이 지금 고등학교를 어떤 거기 군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은 남녕고를 가고 싶어 하는 데 엄마는 안고를 가라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형이 원하는 남녕고를 갔으면 좋겠다.

원래도 이 시처럼 처음에는 시련이 있지만 나중에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감상화 그리기>

-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이나 이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보자.(자유롭게 표현하되, 인물, 사건, 배경이 모두 드러나게 그려본다.)



<비평하기 활동 사례 1>

이 시에 대한 나의 평가		
평가 항목	평가의 근거가 되는 시 구절이나 내용 등	평가 (각 항목 점수 5,4,3,2,1)
1	시 제목과 내용, 글감은 서로 잘 어울리는가?	<봄길>(제목) - 내용이 어울린다. 5 점
2	사물을 잘 관찰하여 비유나 상징적 표현으로 적절하게 나타냈는가?	인생을 좋은 표현했었다. 4 점
3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가?	행복감을 표현도 어려워하기 어렵다. 3 점
4	시의 전체적 분위기를 말할 수 있는가?	고산과 좌절, 극복이 잘 표현 되었다. 5 점
5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는가?	순우리말의 많이 사용되었다. 5 점
종합 점수: 22 점		

실상적인 시론 - 2 - 내용을 표현했다.

<비평하기 활동 사례 2>

이 시에 대한 나의 평가		
평가 항목	평가의 근거가 되는 시 구절이나 내용 등	평가 (각 항목 점수 5,4,3,2,1)
1	시 제목과 내용, 글감은 서로 잘 어울리는가?	봄처럼 희망찬 글감이 있다 (같이 있다) 5 점
2	사물을 잘 관찰하여 비유나 상징적 표현으로 적절하게 나타냈는가?	같이 인생으로 표현한 것 같다 5 점
3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가?	희망을 가져라 (보라) 5 점
4	시의 전체적 분위기를 말할 수 있는가?	희망차다 (같이 있다) 4 점
5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는가?	문율이 잘 나타났다 (같이, 봄 등) 5 점
종합 점수: 24 점		

필자는 이 수업을 1차시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제수업에서는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활동에서 학생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많아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야기 나누기’ 단계만으로 1차시 수업을 진행하고 ‘이야기 만들기’와 ‘이야기 공유하기’단계의 활동은 2차시에 진행하였다. 텍스트 이해와 감상 활동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텍스트나 학생들의 활동 상황에 따라 수업을 2차시로 계획하여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의 꾸준한 실제 수업 실현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의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올바른 시 교육은 시적 언어와 시적 표현을 통해 정서를 순화시키고 바람직한 인생관과 세계관 형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시 감상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여 시에 대한 흥미를 잃고 시는 난해한 장르라고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필자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 감상 교육을 위해 스토리텔링에 주목하였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더하고, 만들고, 들려주고, 표현하고,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스토리텔링은 학생들의 동기 유발에서부터 학습에 대한 몰입, 개념에 대한 이해, 상상력·창의력 신장, 정서적 전달 등 교육 일련의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시 감상 방법에 활용하여 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자의 학교 현장 교육 경험을 토대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 지도법들을 제안하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학습의 단계를 세 단계로 설정하였다. 텍스트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나누기’, 시 속의 상황 이해와 주제적 감상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만들기’, 서로의 감상을 나누고 문학적 반응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야기 공유하기’가 그것이다.

이야기 나누기 단계는 시를 자신이 느낀 대로 이야기하고 다른 독자와 소통하며 작품을 이해해가는 단계이다.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들은 시를 적극적으로 감상하게 된다. 이 단계는 짝끼리 하는 하브루타 활동과 모둠 및 전체 토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하브루타 학습은 동기유발을 위한 질문, 시 낭송하기, 시의 내용 파악하기, 분위기와 정서 이야기, 심상 이야기, 표현 이야기, 운율 이야기, 질문 만들기 등으로 구성하여 텍스트 이해를 돕는다. 짝끼리 하브루타 활동을 먼저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다양한 답이 예상되는 질문은 모둠 및 전체 토의

를 통해 작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이야기 만들기는 ‘시는 시인이 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정된 단계이다. 학습자들은 시를 읽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또는 느낀 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봄으로써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 정서 등을 아우르며 시를 주체적으로 감상하게 된다. 이 단계는 인물·배경·사건 설정하기, 서사화하기, 화자의 일기 쓰기, 연결 독백하기, 가상 인터뷰하기, 희곡 쓰기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인물·배경·사건을 설정하고, 나머지 활동은 시 본문이나 다양한 학습 환경에 따라 또는 학습자들의 선택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활동하게 한다. 이야기 만들기 단계의 활동은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시의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쉽고 자세하게 풀어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모습과 의미를 찾는 등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삶의 다양한 모습과 생각, 가치 있는 체험들을 짧은 시 속에 아름다운 언어와 운율로 표현해내는 시의 예술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야기 공유하기는 시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단계이다. 감상문 쓰기, 감상화 그리기, 비평하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감상문 쓰거나 감상화 그리기 활동이 끝나면 발표의 시간을 가져 다른 학습자들과 감상을 나누게 한다. 자신과 비슷하거나 또는 색다른 다양한 감상을 보며 학습자들은 시에 대한 반응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 감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감상문이나 감상화 발표가 끝나면 비평하기 학습지를 활용해 시를 평가해보게 한다. 각자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의 근거를 들며 이야기해 보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를 능동적으로 감상하고 시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은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간 학습자 중심의 시 감상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시 내용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시의 운율이나 심상 등을 살피는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었다. 물론 시 교육은 인지적 영역보다는 학생들의 풍부한 정서와 상상력을 키워주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 교육의 방향에 부합되면서 시 고유의 특성을 살피는 데에도 효과적인 시 감상 방법으로 필자는 이야기 나

누기 단계에서 ‘하브루타를 통한 텍스트 이해 활동’을 제안하였다.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와 의견을 교환하며 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이야기 만들기 단계에서 시를 자신의 삶 또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연관 지으며 주체적으로 감상하였다. 이야기 공유하기 단계에서도 자신의 감상이나 비평을 다른 학습자들과 나누며 시를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모형’의 전략에 대한 구체적 효과를 검증하거나 실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까지는 다루지 못하였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국어 수업을 통해 검증과 개선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다.

시 감상 교육에서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은 시 학습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다.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에 대한 방법론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편이지만, 시 교육에 대한 평가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시 학습은 학습자의 주관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내고 더불어 순화된 정서를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객관화하여 평가할 것인지, 평가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또는 더 나아가 과연 시 감상과 학습의 결과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시 교육 방법 문제와 함께 시 학습의 평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구인환 외, 『문학 교육론』, 삼지원, 1996.
- 권혁준,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1997.
- 김상옥, 『촉촉한 눈길』, 태학사, 2001.
- 김소월, 『진달래꽃』, 휴먼앤북스, 2011.
- 김억, 『김억 시선집』, 이프리북스, 2013.
- 도정일,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민음사, 1995, p.145.
- 박두순, 『누군가 나를 지우개로 지우고 있다』, 예림당, 1996.
- 백석,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 송정란,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문학아카데미, 2006.
-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미래사, 2001.
- 이육사, 『광야』, 미래사, 2002.
- 정호승, 『사랑하다가 죽어 버려라』, 창비, 2009.
- 최예정·김성룡,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글누림, 2005,

2. 논문

- 경규진, 「반응 중심의 문학 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권혁일,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초등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학연구』 제39집, 2008.
- 김병호, 「한국현대시 감상과 지도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김서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 분석 및 스토리텔링 학습 지도 방안 : 통계 단원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주향, 「시 교육 방법 연구- 상상력 계발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류덕제, 「구성주의 관점의 문학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 부설 교과교육 공동연구소, 2001.

- 박선미, 「평가활동을 통한 초등학교 시 교육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백조현·박수홍·강문숙, 「스토리텔링 기반 수학과 수업설계전략 모형 개발: 확률과 통계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제20집, 2010.
- 신명훈,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구비문학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유유미,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구운몽’ 교육 방안 연구: 환상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윤성아, 「토의학습을 통한 시 감상 능력 신장 방안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경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학 감상 교육 방안 연구: 천상병의 ‘귀천’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순녀, 「비평문 쓰기를 통한 시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지영, 「스토리텔링 수업 기술의 국어 수업 적용 연구」, 『청람어문교육』 제45집, 2012.
- 임경순, 「스토리텔링과 언어문화교육」, 『한국어문학연구』 제26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 전현정·강현석, 「대안적 초등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Egan의 이야기형식 모형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제22집, 2009.
- 지현배,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시 수업모형」, 『국어교육연구』 27호, 경북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995.
- 최선영, 「한국 문학 작품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한지혜, 「시 교육에서의 감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 전성수, 2013.1.8, 한국일보.

<Abstract>

Storytelling Approaches for Teaching and Learning Poetry

Song, Hyeon-j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torytelling Approaches for Teaching-Learning Poetry’ for learner-centered poetry reading. What I have proposed is that a poem can be utilized as a text which consists of characters, events and settings.

In Storytelling Approaches for Teaching-Learning Poetry, there are three learning steps; ‘Story Discussion’ for understanding the chosen poem, ‘Story Making’ for understanding what happens in the poem and interpreting it with their own words, and ‘Story Sharing’ for offering students the chances to share their basic knowledge about it in pairs and be ‘active readers.’

In ‘Story Discussion’, the learners are encouraged to express their ideas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text. The first activity is “Havruta”, which is a student-centered education approach mainly based on a pair work. It can allow the students to exchange their ideas without any repression. It can also provide more information what the students might need. Then, the instructor can have another session of questioning in groups of four or in whole class to get the students to have other perspectives to the text.

‘Story Making’ is assuming a poem ‘a story which a poet wants to tell.’ Keeping a diary, Monologue Relaying, Virtual Interviewing, and Play Writing are good activities for this step. To make a story, characters, events, and settings should first be created. Next activity can be properly selected for the students, considering the contents of the poems, various learning environments, or the learners’ choices. After reading the poems, learners make storie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oetic narrators, time lines and the contexts. In this way, learners can connect themselves with the world in the poems, which help them reflect themselves as well as their surrounding world.

In ‘Story Sharing’ , learners express their appreciation of poems by drawing or writing and share them with others. The activities include writing essays about the poems, visualizing them and analysing them. The instructors should select the activities based on the texts, class environments, and the learners’ interests. When they have chances to see other students’ activities, the learners reflect and gain more confidence with the material.

The benefit of storytelling is that it can draw students’ attention. Utilizing it in teaching and learning poetry will give students opportunities to develop ‘deeper understanding’ about the poetry. To validate this method it would be vital to implement the process during Korean language classes in tandem with the academic institution.